

무성영화·美 인디영화 한자리서 본다

15~31일 '광주극장 영화제' '셜록 주니어' 등 17편 상영 순간판 상판식·관객과 대화도

1920년대 무성영화부터 독일 크리스티안 페츨트, 미국 켈리 라이카트 등 세계적인 감독들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광주극장과 광주시네마테크는 15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개관 86주년 광주극장 영화제'를 개최한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버스터 키튼이 감독과 주연을 맡은 '셜록 주니어'를 개막작으로, 1920년대 작품부터 최근 화제작까지 총 17편을 상영한다. 아울러 순간판 상판식, 시네토크, 관객과의 대화 등 부대행사도 진행한다.

◇상영작
개막작 '셜록 주니어' (1924)는 무성영화의 걸작으로 꼽힌다. 작품은 슬랩스틱이 주는 시각적 쾌감과 영화에 대한 즐거움 탐험으로 가득한 영화로 15일 오후 7시30분 밴드 S.O.M의 연주와 함께 만날 수 있다. 이어 참혹한 전쟁의 시대에도 시들지 않은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며 무성영화시대 최고의 전성영화라는 찬사를 받은 무성영화 '빅 퍼레이드' (1925), 루이 암스트롱 등 전설적인 뮤지션들의 환상적인 공연을 만날 수 있는 '한여름 밤의 재즈' (1959) 등을 상영한다.

독일 베를린과 거장 크리스티안 페츨트 감독과 미국 인디영화를 대표하는 켈리 라이카트 감독을 집중 조명하는 섹션에서는 총 10편의 영화를 상영한다. 크리스티안 페츨트 감독은 2001년 '내가 속한 나라'로 독일영화상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해 주목받기 시작했고 베를린국제영화제 수상 및 각종 영화제에 초청받으며 독일 대표 감독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내가 속한 나라' (2001), '엘라' (2007), '열망' (2008), '바바라' (2012), '피닉스' (2014), '트랜짓' (2018), '운디네' (2020) 등 7편을 선보인다.



황덕호 평론가 김희정 감독

켈리 라이카트 감독은 '초원의 강' (1994)으로 데뷔한 이후 매 작품마다 여성주의적 시각을 담아 내며 독보적인 필모그래피를 쌓고 있다. '웬디와 루시' (2008), '어떤 여인들' (2016), '퍼스트 카우' (2019) 등 3편을 만날 수 있다.

이외에도 전설적인 무용수 이사도라 던컨의 작품을 통해 네 명의 여성이 서로 교감하고 각자의 방식으로 해석하는 모습을 담은 '이사도라의 아이들' (2019-감독 다미앙 마니엘), "인간이라는 우주에 대한 아름다운 연작시이자 움직이는 회화 같은 작품"이라는 호평을 받으며 제76회 베니스국제영화제 감독상을 수상한 '끝없음에 관하여' (2019-감독 로이 앤더슨), 남성 중심의 한국노동투쟁사를 1960~70년대 미상을 돌리던 여성 노동자들의 삶을 통해 새롭게 써 내려간 '미싱 타는 여자들: 전태일의 누이들' (2020-감독 이혁래, 김정영), 한 가정의 삶의 표류와 고독을 담담하게 펼쳐내는 '절해고도' (2021-감독 김미영) 등 미개봉작도 만날 수 있다.

◇부대행사
영화제 개막날인 15일 오후 7시에는 제6기 영화간판학교 참여 시민들이 직접 그린 순간판을 극장 외벽에 올리는 '순간판 상판식'이 진행된다.

17일 오후 3시 '미싱 타는 여자들: 전태일의 누이들' 상영 후에는 김다정 광주청년유니온 사무국장의 사회로 이혁래-김정영 감독과의 대화 시간이 마련된다. 이어 22일(오후 7시10분) '절해고도'



'개관 86주년 광주극장 영화제'가 15일부터 31일까지 광주극장에서 열린다. 사진은 개막작으로 선정된 무성영화 '셜록 주니어'.



크리스티안 페츨트 감독의 '운디네'.

상영 후에는 정지혜 영화평론가의 진행으로 김미영 감독과의 대화도 열리며, 23일 '트랜짓'을 보고 난 후 크리스티안 페츨트의 감독의 영화 세계를 집중 탐구하는 김희정 감독의 시네토크가 진행된다.

24일 '한여름밤의 재즈' 상영 후에는 황덕호 음악평론가의 토크가, 29일 '퍼스트 카우' 상영 후에는 유운성 영화평론가의 시네토크가 열려 관객들

에게 영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영화제의 개막작 '셜록 주니어'는 5000원, 나머지 영화들은 8000원이다. 광주극장 후원회원은 영화 2편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나머지 영화는 5000원에 관람할 수 있다. 문의 062-224-5858.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문예진흥기금 공모 설명회 예술위, 13일 온라인 개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종관·이하 예술위)가 2022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설명회를 13일 오후 5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 발표할 주요 내용은 창작지원 규모 및 영역 확장, 공모 접수 결과 사전 안내, 지역균형지원제도 확대, 예술 생태계 안정장 강화 등이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서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국제교류, 예술인력육성, 신나는예술여행 등 6개 분야 설명 영상이 공개될 예정이다.

정시공모 외 별도공모 추진 사업은 2022년 1분기까지 순차적으로 공모 후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사업 설명 관련 문의 사항은 질의응답 게시판을 통해 수시로 상담 가능하다. 설명회는 예술위 유튜브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2022년도 문예진흥기금 정시공모 1차 신청접수는 오는 14일 오전 10시부터 11월 8일 오후 6시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예술위 홈페이지 또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발달장애아동...' 보고서 발간 광주여성가족재단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미경)은 최근 연구보고서 '광주광역시 발달장애아동 지역사회 돌봄환경 개선방안'(사진)을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2014년 발달장애인을 위해 구축된 복지 제도에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발달장애아동(만 0~18세)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기획됐으며, 연구보고서는 장애등급제 폐지, 발달장애인 지원 확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접근해 광주시 발달장애아동에 대한 돌봄실태 및 요구를 중심으로 중장기적인 정책방안을 담은 결과물이다.

연구보고서는 중앙정부 및 광주지역 발달장애아동 돌봄정책과 복지서비스 및 지역사회 전반적인 서비스기관 공급현황에 관한 기초자료와 발달장애아동의 돌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의 지원체계 등을 다룬다.

아울러 장애위험 영유아 조기발견 및 개입을 위한 조례 제정, 광주지역 장애아동 생애주기별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전일적 생애주기를 고려한 개별화지원체계 마련, 장애아동 행정전담조직 및 지역사회돌봄협의체 운영 등 발달장애아동을 위한 지역사회 돌봄환경 개선방안 등도 담고 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삶이 팍팍하다고 느끼는 젊은이들과 용기 나누고 싶었죠"

구례 출신 서현섭 전 교황청 대사 '구례에서, 세계로' 펴내

"되돌아보면 외교부에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큰 행운이자 축복이었다. 국가와 외교부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다. 운 좋게도 좋은 선배와 동료들을 만났다. 주위의 친척들에게도 알게 모르게 많은 신세를 졌다."

구례 출신 전직 외교관 서현섭 전 교황청 대사가 '구례에서, 세계로' (보고서)를 펴냈다.

젊이 들기 전 부친을 여리고 어머니의 희생으로 자란 저자는 '둔한 말도 열을 가면 천리를 간다'는 금언을 되새기며 살았다. 자식들을 위해 온갖 어

려움을 감내해온 어머니 기대에 어긋나지 않겠다는 자각에서였다.

2021년은 선천 타계 70주기가 되는 해라 여느 때보다 뜻 깊은 해다. "어느 날 문득, 늙은 자신과 그리고 오늘에 이르렀는지의 인생 여정을 되돌아보고 멀리까지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책은 그러한 연장선의 결과물이다.

'전직 외교관의 분투기'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책에는 외교관 생활을 중심으로 이전과 이후의 여정들이 담겨 있다. 그동안 저자는 일본 대사관 총

영사, 러시아 대사관 참사관, 파푸아뉴기니 대사, 후쿠오카 총영사, 요코하마 총영사, 교황청 대사, 부경대 초빙교수, 나가사키 현립대학 교수 등을 역임했다.

이번 책은 이전의 '책과 인생', '한일협력', '외교' 등의 잡지에 이미 게재한 기고문과 기간의 저서도 활용했으며 무엇보다 "오늘의 삶이 팍팍하다고 느끼는 젊은이들과 용기를 나누고 싶은" 바람을 담고 있다.

또한 책에는 일본에서의 외교관 활동과 그곳에서 만났던 사람들, 일본에 대한 단상을 비롯해 모스크바 영사처 개설 요원으로 활동했던 일, 한·소



샌프란시스코정상회담 후일담, 6박7일의 사베리아 철도 횡단기 등 다양한 경험과 단상들도 포함돼 있다.

저자는 에필로그에서 "운명이란 무겁게 생각하는 자에게 더욱 무거운 법이라고 한다"며 "가혹한 운명에 전의를 불태우며 치열하게 살아오면서도 역설적으로 나는 낙천주의자의 길을 선택하고 언제나 턱없이 높은 생의 목표에 도전하고 좌절하고 울고 웃곤 하였다"고 밝힌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h2 style="font-size: 2em;">미스트크리너</h2> <p>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p>	<h2 style="font-size: 2em;">더스트크리너</h2> <p>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p>	<h2 style="font-size: 2em;">전기집진기</h2> <p>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p> <p style="background-color: black; color: white; padding: 5px; text-align: center;">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지본 판매하실 분</p>
----------------------------------------------------------------------------------------------------------	-------------------------------------------------------------------------------------------	-----------------------------------------------------------------------------------------------------------------------------------------------------------------------------------------------------------------------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철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우테크노리온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